

S-Oil, 신·재생 에너지 뛰어드나?

최대주주 Saudi Aramco 적극 권장 ... Showa Shell과 협력 가능성도

세계 최대 원유 공급기업 Saudi Aramco가 자회사 S-Oil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할리드 A. 알 팔리 Saudi Aramco 총재는 12월2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태양광을 포함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Saudi Aramco는 사우디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투자기업 Showa Shell을 통해 태양전지 셀 제조설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에서도 S-Oil을 통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일본 Showa Shell과 협력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안정적인 원유공급 의지가 있다는 것을 세계시장에 알리고 싶다”며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원유의 하루 잉여생산분 400만배럴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 팔리 총재는 11월28일 방문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등 국내 정유4사 대표와 건설사 대표 등을 두루 만났으며 SK에너지, GS칼텍스 등 기존 수요처에 원유 공급을 늘리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수요기업이 아닌 현대오일뱅크에도 원유를 공급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Saudi Aramco는 S-Oil의 최대주주이자 SK에너지와 GS칼텍스 등에 국내 원유 수입량의 30%를 공급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2/02>